

■ **현장과 시각** ■

문화 아지트와 충장로 축제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 11일 밤 광주시 동구 충장로 중국음식점 '왕자관' 앞을 지나던 이들은 흥겨운 연주 소리를 들었을 지도 모르겠다. 심장 박동을 건드리는 드럼과 경쾌한 피아노, 저음의 베이스 기타가 어우러진 음악 소리가 들려온 곳은 카페 '아이리스'의 테라스.

아이리스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광주에서 활동중인 JS뮤지션 그룹의 '프라이데이 재즈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이들은 두 부류였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다 뜻하지 않게 공연까지 관람한 이들. 밤에 흥취 짙어 공연을 끝낸 밴드에게 박수가 쏟아졌고 관객들은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광주학생회관 옆 골목에 위치한 갤러리 카페 '수'에서도 금요재즈콘서트가 열리고 주말이면 아마추어 밴드들의 공연도 이어진다. '수'에서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뉴욕 인더 키친'에서는 매달 퓨전 국악 연주회가 열린다.

최근 도심 속 카페들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들 공간에서는 연주회가 수시로 진행되고 전시회도 열린다. 삭막한 도심에서 허파같은 '문화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취재 중 만난 카페의 젊은 주인장들은 '문화 매신저'가 되고 싶어했다. 음악·연극·미술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연하고, 전시도 하며 관객들과 하나되는 공간을 꿈꾸고 있었다. 취재 하며 아쉬웠던 건 아직은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 무료 공연도 많고, 티켓 가격(5천 원)도 저렴한데 흥보가 부족해 관객이 썩 많지는 않았다.

해마다 가을이면 광주시 동구청 주최로 광주 충장로 축제가 열린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축제 프로그램은 해마다 엇비슷해 참신함이 떨어진다. 지적을 받아왔다.

옛전남도청 앞에 무대를 만들고 가수를 불러 콘서트를 여는 것도 좋지만, 올해는 충장로 구석 구석에 박힌 문화 공간들을 행사 장소로 활용하면 어떨까. 카페 주인장, 공간을 활용중인 젊은 예술가들이 기획에 참여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질 것이다.

도청 앞 무대는 고작 '하루짜리'지만 도심 속 작은 공간들은 충장로의 '불박이 문화 공간'이 되지 않는가.

더불어 카페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데 필요하다. 서울 홍대앞 '클럽 데이'처럼 특정 일을 정해 문화 아지트들과 공동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또 하나, 지역 예술인들도 문을 활짝 열어놓은 문화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맥주 한잔 마시며 'Fly to the moon'을 듣고, 향긋한 커피 한잔 앞에 두고 감명 깊은 책의 구절을 읽어주는 문학인들의 낭독회에 빠져드는 것, 그건 꽤 근사한 문화 향유다. /mekim@kwangju.co.kr

멕시코 피랍 한인 5명 전원 석방

몸값 지불 없어...美 밀입국 시도 등 조사

멕시코 국경도시에서 피랍들에 납치됐던 한국인 등 5명이 피랍 9일 만인 23일 전원 무사히 풀려났다.

그러나 피랍자들이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등 정확한 피랍 경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이날 "지난 14일 멕시코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5명이 한국시간 오늘 오전 9시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우리시간 23일 아침(현지시간 22일 오후) 범인들이 인질을 멕시코 레이노사시 중심부 호텔 앞에 내려놓고 도주한 후 경찰에 전화로 소재를 알렸고 이

에 따라 오전 9시경 멕시코 경찰이 인질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경찰 측은 인질 구출을 위한 합동작전을 했고 이들이 억류된 장소 인근을 수색해 들어감에 따라 범인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인질을 풀어주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이날 "지난 14일 멕시코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5명이 한국시간 오늘 오전 9시 전원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우리시간 23일 아침(현지시간 22일 오후) 범인들이 인질을 멕시코 레이노사시 중심부 호텔 앞에 내려놓고 도주한 후 경찰에 전화로 소재를 알렸고 이

에 따라 오전 9시경 멕시코 경찰이 인질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 인질지임을 감안할 때 미국 밀입국 시도 여부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단순한 납치라기 보다는 밀입국 시도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성격 규정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면적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나이 30~40대로 알려진 피랍 한국인 등 5명은 지난 14일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주 접경지역인 멕시코 레이노사시에 갔다가 차량 운행 중 괴한에게 납치됐다.

외교부는 21일 사건을 인지한 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금품을 노린 단순 납치사건이라는 추정 아래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 치안 당국 등을 상대로 석방 노력을 전개했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2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비공식 6자회담을 갖기 위해 회담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환 외교부장관,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중국 양제천 외교부장, 박의춘 북한 외무성. /연합뉴스

비핵화 2단계 마무리 6개 항 합의 6자 외교장관회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외교장관들은 23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동,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북핵 검증, 동북아 평화안 보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6개국 장관들은 특히 비핵화 2단계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를 위한 참가국들의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6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6개 합의에는 ▲6자 외교장관들은 6자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룬 업적들이 있었다는데 동의했고 ▲지금까지 합의에 따라 각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앞으로 완수해나가기로 재확인했으며 ▲6자회담 과정이 핵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자관계 개선, 정상화문제, 동북아평화와 화해라는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비핵화 2단계 이행에 있어 완전하고 균형적인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과

정에서 신속히 검증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수석대표들의 분발을 촉진하고, 공식적인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개최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장국인 중국의 양제천 외교부장은 이날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을 정리하며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회담 소식통이 전했다. /연합뉴스

“北, 대북특사 받지 않을 것”

李대통령 “금강산 피살 北 확실한 조치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키로 한 것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한 여러 구상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저 쪽(북한)도 반기가 힘들고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독도, 금강산 사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나 시간이 걸려도 적당히 해결하기 보다 원칙에 맞게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북특사 파견의 성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 대일 대응에 있어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특히 이 대통령은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 “무장하지 않은 여성 관광객을 뒤에서 쫓는데 이는 남북문제를 떠나 국가간의 통상적인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다른 남북관계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에 따른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확실히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 대 정부,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에 답변이 없는데 대해 “역사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나온다”고 지적한 뒤 “합의,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은데 통미통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전자기파 무기 개발 가능성”

美하원 보고서 “美 피습뎀 국가재앙 올 수도”

미국 의회가 북한과 이란 등의 전자기파(EMP·Electro-Magnetic Pulse)무기 개발 가능성을 거론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MP무기란 핵폭발처럼 폭발성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통신망, 전기 및 전자장비, 컴퓨터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무기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적지만 재앙에 가까운 경제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신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미 하원 군사위 산하 'EMP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발간한 EMP보고서에서 미국

의 민간 및 군사분야의 주요 국가인프라가 '불량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의 EMP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EMP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내 주요 인프라들이 국가적 재앙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표면 40~400km 상공에서 핵탄두가 폭발, 고고도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경우 즉각적으로 미국내 주요 전기 및 전자 인프라가 방해받거나 파괴될 수 있다면서 EMP는 미국 사회에 재앙과 같은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몇 안되는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금강산 CCTV 계약 깨고 北이 일방 설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현장 폐쇄회로(CC) TV를 당초 남측에서 시공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일방적으로 설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운선 의원은 23일 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CCTV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한 전자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05년 6월 17일 금강산 해수욕장 시설 보안공사의 일환으로 북측 요청에 따라 감시카메라(SOC-4204) 및 저장장치를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초 계약서에는 이 업체가 CCTV를 직접 설치하는 작업까지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소가 같은 해 6월 21일자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북측으로부터 관련 물품만 인도를 요구, 일부 자재만 현대아산으로 인도하고 설치 공사를 못했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적혀 있어, CCTV 반출 이후 북측의 갑작스런 일방적 조건 변경으로 애초 계약과 달리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김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이 과정은... (text) ...

김영민(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경영 지도자 과정

이 과정은... (text) ...

한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1. 연수일정

2. 교육내용

3. 교육장소

4. 교육비용

5. 기타사항

6. 문의처

광수어사대학교 평생교육원

한문지도사지적 연수생모집

2008년(제1기)

1. 연수일정

2. 교육내용

3. 교육장소

4. 교육비용

5. 기타사항

6. 문의처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